

《ごあいさつ》
《인 사 말》

伊藤 勲
이토 이사오
財団法人 グニベール財団 理事長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ごあいさつ



伊藤 勲
財団法人 ユニバーサル財団
理事長

お蔭様で、第4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開催させていただく運びとなりました。

昨年は、韓国・ソウルにおきまして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韓国の皆様方から素晴らしい評価をいただきました。本年は、港町として世界に開かれた街「神戸」で開催できますことを大変うれしく光栄に存じます。

開催にあたり、ご協力くださいました各団体ならびにご来場くださいました皆様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わが国では、阪神淡路大震災が発生した1995年が日本の「ボランティア元年」といわれ、1998年には「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NPO法）」が施行されました。これにより国民の社会参加の機会として、NPOに対する関心が増大しました。

こうした動きが起業にもつながり、いままで行政の手が届かなかった教育や文化、環境、福祉などの多くの分野で、質のよいサービスが提供されるようになってまいりました。

社会福祉の分野におきましては、介護保険制度の導入により、社会福祉法人をはじめ株式会社やNPOなど民間団体による多様なサービス提供が可能になっております。

本シンポジウムでは、浅野仁先生と文玉綸先生のお二人が基調講演で、日本と、やがて介護保険制度が施行される韓国の「高齢者福祉サービスの動向」について論じてくださいます。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では、サービスの提供者や利用者のそれぞれの立場から見た「福祉サービスの質の向上」とは何かについて討議をしていただくこ

とになりました。

さらに、財団法人ひょうご震災記念 21 世紀研究機構の野尻武敏会長の記念講演など、本年もまた皆様のご理解とご協力のもとに素晴らしいプログラムを組むことができました。重ねて感謝申し上げます。

ここ数年の韓流ブームによって、日韓の交流は多方面で活発に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韓国における昨年の海外旅行者の数は日本人が一番多く、次いで中国、香港、台湾からの旅行者も増加していると聞きます。

そもそも東アジア諸国の交流はいにしへの昔にさかのぼります。文化的・精神的側面から申しますと、中国から高句麗に仏典と仏像が伝えられ、ついで百済・新羅へ、6 世紀の中ごろには、百済の聖明王によって日本に仏教の信仰が勧められました。この仏教伝来が日本文化の源流といえましょう。

いま、韓国、中国、日本などそれぞれの国が文化を発信し、同時にその流れを互いに受け入れ、融合しながら新たな発展をみせております。これが融和・協調を基盤とした世界平和に向けて、重要な役割をになう「東アジア地域世界」の実現の兆候であるとするならば、大変喜ばしいことです。

毎々申し上げますように、この「“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交流の小さなひとつの点に過ぎ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しかし小さな点が一つ二つと増え、点から線、線から面へ、大きく広がっていくことを考えますと、毎年、継続して助成させていただけることに喜びを感じます。

この度の第 4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開催によって、日韓の高齢者福祉のあり方に対する理解と関心が深まり、豊かな長寿社会に向ける取り組みの一助になれば幸いです。今後ともシンポジウム開催ならびに当財団の活動にご理解ご協力賜り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인사말



이토 이사오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제4회“일·한 마음의 교류”심포지움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년은 한국 서울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의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항구도시이고 세계에 열려 있는 도시“고베”에서 개최하는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최에 앞서 협력해주신 각 단체 및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나라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을 일본의 “자원봉사원년”으로 삼고, 1998년에는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NPO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국민의 사회참가의 기회로서 NPO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에도 연결되고 지금까지 행정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많은 분야에서 좋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분야에 있어서는 개호 보험제도의 도입에 의해 사회복지 법인을 비롯하여 주식회사와 NPO등 민간단체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움에서는 아사노 히토시 선생님과 문 옥륜 선생님의 두 분의 기초강연에서 일본과 곧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는 한국의 “고령자 복지 서비스 동향”에 관해서 강연이 있겠습니다. 패널디스커션에서는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각자의 입장에서 본 “복지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토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더욱이 재단법인 효고 지진기념 21세기 연구기구의 노지리 타게토시 회장님의 기념강연 등 올해도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몇 년간 한류붐에 의해 일한의 교류는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작년엔 해외여행자의 수가 일본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홍콩, 대만으로 여행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아시아제국의 교류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화적·정신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고구려에 불전과 불상이 전해지고 또 백제, 신라에 6세기 중에는 백제의 성명왕에 의해 일본에 불교의 신앙이 전해졌습니다. 이 불교 전래가 일본문화의 원류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등 각 나라가 문화를 발전시켜 동시에 그 흐름을 함께 받아들여 융합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융화·협조를 기반으로 한 세계평화를 향해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는 “동아시아지역 세계” 실현의 조짐이라고 한다면 매우 기쁜 일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일·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은 교류의 작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점이 하나 둘씩 많아져서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크게 확대될 것을 생각하면 매년 이어지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낍니다. 이번에 제4회“일·한 마음의 교류”심포지움 개최에 의해 일·한의 고령자 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이해와 관심이 깊어지고 풍부한 장수사회를 향하여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심포지움 개최 및 본 재단의 활동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